

데스크시각

정 후 식



잔치는 끝났다. 수십억 세계 축구팬들 을 갖 못 이루게 했던 '지구촌 축구축제' 남아공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유럽과 남미의 전쟁은 유럽의 완승으로 결판났다. 남북을 새우며 TV중계를 지켜본 필자 같은 얼치기 축구팬의 눈에 유난히 거슬린 것은 선수들의 과도한 반칙이었다.

공을 빨리 내놓지 않느냐며 자신의 백태클에 걸려 넘어진 선수를 다시 걸어차는가 하면 지나친 몸싸움으로 상대편 선수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페어플레이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반칙왕'들은 여지없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동료들이 4년동안 흘린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지방선거 레드카드만 440명

브라질의 미드필더 펠리피 멜루는 네덜란드와 8강전에서 천금 같은 어시스트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불 다툼 과정에서 백태클을 한 뒤 허벅지를 밟는 어

이없는 반칙으로 그라운드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브라질은 끝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4강 진출 좌절의 쓴맛을 봐야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수비수 은 헤이팅아

'풀뿌리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스페인과 결승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연장 후반 퇴장당했다. 그 직후 스페인의 결승골이 터졌다. 거친 반칙이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네덜란드는 이번 월드컵 7경기에서 126개의 파울에 23장의 경고를 받아 최다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축구영웅 요한 크루이프는 이를 '천박한 축구'라고 맹비난했다.

월드컵에 앞서 향후 4년간 지방정부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 지방선거도 끝났다. 민주당 경선과정부터 있던 잡음으로 혼탁양

상을 보인 광주·전남 지방선거 역시 수많은 반칙으로 얼룩졌다. 선거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부정선거 최대 지역'이란 오명을 썼다. 파울을 범한 당선자들은 취임식도 못해보고 절창신세를 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에서는 440여명이 입건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2300여명이니 5분의 1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거 이후 낙선자들의 고소·고발까지 이어져 당선무효 사태와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덕분에 지

역 변호사업계는 오랜만에 선거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칙의 수준도 도를 넘었다.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에 동원해 전락수립과 동향보고는 물론 입당원서까지 받게 한 '관건 선거'가 대표적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복(公僕)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들고 업무공백까지 초래했다.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인사비리와 공사비리도 추악하기 짝이 없다. 자

신 때문에 직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책임지는 단체장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실망스럽다.

자정·청렴 다짐만으론 안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땅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이다. 무안군과 여수시는 취임식 대신 공무원들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정을 결의했고, 완도군은 단 한 건의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개방형 감사관제'도 그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일회성 전시행정' 아니냐며 의심스런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그만큼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반증이 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단체장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반칙과 더러 플레이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펼칠 행정은 불보듯 뻔하다. 반칙은 또 다른 반칙을 낳는다. 명토박아 둔다. 행여 오심이나 애매한 관정으로 어쭙할 '퇴장'을 면했다 하더라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르그스의 눈'으로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시 설

F1 D-100, 성공개최 위해 지역 역량 모아야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100일(16일) 앞두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목포 일원에서 카퍼레이드와 드래그 레이싱 등이 펼쳐진다.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출발해 목포시 평화광장을 잇는 약 100km의 일반도로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카퍼레이드에는 오토쇼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슈퍼카 30여대가 참가해 시·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선보인다. 전국적인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서울 흥대입구 등에서 'F1사일런스 스피드 디스코 파티'도 개최된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경주장 조성 공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다음 달이면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흔히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린다. 경기당 평균 관람객

20만명에 200여개국 6억명이 TV를 통해 시청하게 된다. 관광효과 등 막대한 국가적 이익은 물론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숙박과 교통시설이 문제다. F1조직위가 광주시에 관광호텔과 전남의 모든 숙박시설 중 실제이용이 가능한 4만6천여실을 확보했으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 방면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됐던 무영대교의 임시개통이 불발됨에 따라 대회 기간 중 교통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통과 숙박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 금리 '잇속 쟁기기' 해도 너무한다

은행들의 금리 '잇속 쟁기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즉각 인상하면서도 예금금리는 이렇저런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오르자마자 대출금리를 이번 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를 0.06%~0.17%포인트 올렸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도 대출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F1도 인상했다. 반면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 폭은 물론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 본 뒤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금리가 오를 때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

를 보여왔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편승해 앉아서 재미를 본 것이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클수록 소비자 특히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서민 가계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가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가계 부실마저 우려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쟁기기보다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가계 파산은 은행 부실로 이어져 전체 금융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쟁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자 높이에 안주해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자 인하와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은행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미국과 유럽에서는 리그(League)라고 불리는 일종의 연합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메이저리그(야구)와 프리미어리그(축구), 월드컵(배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초능력을 갖춘 슈퍼히어로(Hero)들만의 모임인 특별한 리그가 존재한다. 바로 저스티스리그(Justice league)다. 물론, 만화 이야기

다. 정확하게는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지구를 수호하기 위한 슈퍼히어로들의 모임이다. 슈퍼맨에서부터 배트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플래시, 호크 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캐릭터들이 저스티스리그의 구

성원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지구에 위협에 빠지면 순식간에 출동,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해낸다. 모두가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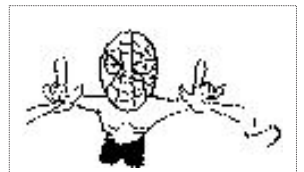
에, 이들에게는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배에 새겨진 왕(王)자가 두드러진 슈

를 보여왔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편승해 앉아서 재미를 본 것이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클수록 소비자 특히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서민 가계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가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가계 부실마저 우려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쟁기기보다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가계 파산은 은행 부실로 이어져 전체 금융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쟁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자 높이에 안주해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자 인하와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은행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스티스리그



기 고

강 왕 기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4년을 향한 땀이 흘렀다. 광주호를 이끌어갈 새 선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물론, '시민이' 행복한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제적 구조와 기반은 통계상 강건하지 않지만 내실은 뒤지지 않는다. 아직은 과정일 뿐이다. 민선 3, 4기를 통해 향후 미래 광주의 비전을 밝혀 줄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지역경제 활황의 씨가 뿌려져 결실을 하느라 거뒀다고 있으며 광산업의 발전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선다. 민선 5기는 그 출범과 함께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조직계편안에 '시민소통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들 환영할 만한 해법이 아닐 수 없다.

강왕기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우수한 머리와 예술적 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라는 광주의 DNA를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6년 연속 수능 성적 전국 1위와 4년째 대학입학률 전국 1위라는 사실은 광주의 우수한 두뇌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예술적 끼 또한 예향의 광주로 발전

광주, 99도에서 멈출 수 없다

어렵사리 다져온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쌓아올려야 할 때다. 명실공히 시작한 셈이다. 경제 통계상 조금 미약하다 하더라도 광주의 경제 활성화를 불지르려 노력은 이미 뒤여졌다. 향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광주 경제의 약순환 구조가 점차 개선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도약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산적한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철도 2호선, 2015 U대회 선수촌 건립, 야구장 문제' 등 골칫거리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해법이 주효할 것인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국면이다. 과연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 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의 첫 단추는 '참여와 소통'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통이 말처럼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의 당위성이 앞설 뿐, 소통에 대한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 창조와 도약을 바라는 145만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지금 광주의 운도는 섭시 99도'라고 표현한다. 민선 5기의 출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이다. 물은 100도 미만에선 끓지 않는다. 99도에서 물은 여전히 액체 상태의 물일 뿐 결코 끓지 않는다. 마지막 1도를 넘어서는 순간 물은 비로소 기체로 승화된다. 아무리 뜨거운 열망과 기대가 있다더라도 '마지막 1도'를 포기해 버리면 그저 물이 지나지 않는다.

광주는 지난 시절 99도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가? 안타까운 세월도 보냈다. 2010년 광주는, 바로 99도의 지점에 올라섰다. 99도까지 올라놓고 마지막 1도를 울리지 않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광주는 99도에서 멈출 수 없다.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장)

집중해야할 법정에서 한눈파는 직원들 '꼴불견'

몇 달 전에 민사분쟁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사실이 있다. 소송액(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소송금액)이 4억여 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금액이었다. 재판장은 진지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나 또한 재판의 증인이었기에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의 자리에 앉아 증인신문을 기다리는데 법원직원의 모나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이 비쳤으며 있음은 물론 가끔 핸드폰 문자가 오는지

한 손으로 문자를 발송하지는 않나. 순간, 나도 4억이라는 금액에 집중을 해야하는 판단에서 잠시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 또한 약간 무뎠던 게 사실이었다.

4억이라는 소송금액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다툰이 생겨 증인까지 부를 정도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많은 금액일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재판일 것이다. 근엄한 법원, 재판장에서 이러한 직원들의 경솔한 행위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민호·광주시 북구 신안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흥 근



도시와 건축물은 우리 삶과 함께한다. 이는 유기체처럼 성장도 한다. 그러나 수명도 있다. 물리적 수명과 사회적 수명이다. 물리적 수명이란 건축물의 주체요인 콘크리트의 수명과 같이 한다. 100년은 거뜰하고 200년도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적 수명보다는 사람의 요구나 기능의 변화에서 오는 사회적 수명이 문제다. 삶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생활주기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쓰임새는 수시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건축물 중 문화재는 지어 진지 50년 이상 된 것 중 가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

지하와 지상은 화폐박물관이나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도심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곳엔 금남로와 함께한 오랜 역사와 전통, 광주 경제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가치가 많았다. 그래서 그만큼 아쉬움이 많다.

인간은 적응력이 매우 우수하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보존하면서 새로운 재성을 통한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를 불편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미래 또한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

광주공원은 구도심 가까이 있다. 그

보존과 도시재생

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40년 이상을 함께하던 건물이 현재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헐리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많은 세월동안 추억과 역사와 이야기가 그곳엔 있다. 이를 함부로 파괴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도시 정체성은 과거 흔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쌓아 그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가치를 높여가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오래되고 현재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은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다.

금남로엔 구 한국은행 건물을 헐고 조성한 금남 공원이 있다. 현재 공원 자체만 보면 분명 의미는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 40여 년 전 광주 금융가인 금남로에 지어진 한국은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 건물을 보존하면서 1층을 필로티(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기둥만 남기고 개방하는 것)로 처리하여 공원조성을 하고,

곳엔 시민화관도 있다. '50만 시민의 문화의 전당, 1970년 8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시민과 함께한 지 40년의 역사다. 이를 헐고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지되어야 한다. 광주 최초의 시민문화공간이며 40여 년의 세월동안 시민과 함께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된 공원의 중요 사실이다. 그리고 건축적으로 봐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공원장으로는 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역사와 이야기가 그곳에 스며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를 보존하자. 그리고 다듬고 어투만지는 재생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자산으로 만들자.

광주엔 이와 같은 숨어있는 자산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할 뿐이다.

외국여행의 기억을 생각해보자.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던가?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서 그와 함께한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광주 정체성과 경쟁력 찾기 해법이 있다.

(건축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00-55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제 1부 2200-691	사 진 부 2200-691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